‘역시 김지완’ 수익·신뢰 두토끼… 지역뱅크 넘어 ‘글로벌’

금융 다이제스트

KB국민은행

개인 IRP 자동이체 이벤트

KB국민은행은 1일부터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연말정산의 정석! 개인형 퇴직연금(IRP) 자동이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2018년 9월 말 기준 개인형IRP를 보유하고, 11월 말까지 매월 20만원 이상 자동이체를 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2000명에게 1만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신한생명

변액보험 신규펀드 3종

신한생명은 개인별 위험 성향과 투자 목적을 반영한 3종의 신규 펀드를 현재 판매 중인 모든 변액보험에 탑재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신한생명 변액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이달 2일부터 펀드변경이 가능하다. 이번에 신규 설정된 펀드는 ‘스마트 자산배분형 30·50·70’ 펀드다. 위험자산의 최대 비중을 기준으로 30%(안정형), 50%(성장형), 70%(공격형)의 3가지 형태로 구성했다. 주요국의 증시와 원자재, 스마트 베타 상장지수펀드(ETF), 국내외 채권형 펀드 등 전 세계 모든 자산을 투자 대상으로 한다.

위험자산 최대비중에 따라 펀드 형태를 구분해 고객이 개별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를 고를 수 있다. /김희주 기자 hj89@

삼성화재

‘애니핏’ 포인트 더블 적립

삼성화재는 10월 한 달간 자사 건강증진 서비스 ‘애니핏(Anyfit)’ 포인트를 두 배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애니핏은 걷기, 달리기, 등산 등 운동 목표 달성 시 모바일 쿠폰 구입에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건강증진 서비스다. 내년 4월부터는 보험료 결제에도 포인트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신규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닌 약 300만명에 달하는 삼성화재 건강보험 고객 모두에게 제공된다. /김희주 기자

BNK금융 김지완號 1년

조직 재정비·인사단행 등 조직정상화로 투명성 강화
상반기 순이익 3576억원 전년比 8.1%↑… 업계 1위

“사람이든 조직이든 성장통을 겪게 마련이다. 은행 중심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도약을 위해선 모든 이가 수긍 가능한 그룹 경영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급선무다.”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의 확고한 신념이다.

김 회장이 BNK금융의 운전대를 잡은 지 1년. 1년 간의 BNK금융과 김 회장의 미션은 ‘조직정상화’와 ‘수익다변화를 통한 실적 견인’이었다. BNK금융은 채용비리와 주가조작 파문 등으로 떨어진 그룹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원칙과 투명경영’를 통한 체질개선에 진력했다.

‘고인 물’이 아닌 외부출신의 김 회장은 은행과 비은행의 융합, 자회사 간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실적호조를 창출했다는 평가는 받고 있다. 건강한 조직, 경쟁하는 조직, 공부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한 BNK금융은 최고경영자(CEO) 한 사람의 역할과 비전이 얼마 만큼 중요한 지를 보여주고 있다.

◆혁신과 조직 정상화

BNK금융은 지난해 9월 말 김 회장 취임 이후 1년 동안 ‘원칙과 투명경영을 통한 조직의 정상화’에 힘썼다. 엘시티 사건과 자사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경영진이 중도 퇴진하면서 지난해 9월 취임한 김 회장은 그룹 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주 회장이 은행장을 겸직하는 은행 중심 의사결정이 합리적인 경영을 저해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취임 즉시 부산은행장과 지주 및 부산은행 이사회 의장을 분리했다.

또한 전결권 하부이양 등을 추진하고, 지난해 12월에는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백년대계위원회’ 출범과 그룹 감찰반과 그룹감사총괄 경영진을 선임하는 등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했다.

조직 정비와 인사단행에도 칼을 빼들었다. 이에 따라 지주는 그룹의 주요 업무를 통합·관리하는 매트릭스체계를 도입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그룹 시너지 사업을 맡을 시너지추진부와 글로벌사업지원부, 디지털사업지원 등도 신설했다.

◆지역경제난에도 호실적 견인

올해 상반기 BNK금융의 순이익은 3576억원으로, 지방금융지주사 중 순익 1위 자리를 지켰다. 지난 1년간의 BNK금융 지주의 실적은 안정적인 상승곡선을 그렸다.

순익이 작년보다 8.1%(269억원) 증가했고, 수익성을 나타내는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도 각각 0.07%포인트, 0.21%포인트 개선된 0.78%, 9.80%로 집계됐다.

특히 지역 경기 부진에도 핵심이자 등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선방했다. 이자이익 부문에서 전년 동기 대비 3.09% 확대된 1조1689억원, 수수료 부문 이익은 26.2% 오른 1103억원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계열사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에도 힘을 싣고 있다. 앞서 김 회장은 은행과 비은행 융합과, 비금융 및 ICT기업과의 시너지 발현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기업투자금융(CIB)와 자산관리(WM) 부문도 확대했다. 또 증권, 자산운용, 캐피탈 등 비은행부문과 비이자부문도 강화했다.

그룹 CIB부문에서는 ‘부울경 CIB센터와 서울CIB센터를 설립하고 국내 항공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항공 MRO 신설법인에 출자했다. 그룹 WM부문에서는 대체투자상품 라인업 강화, 종합자산관리솔루션 제공, 은퇴금융 경쟁력 강화 등 신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BNK투자증권과 BNK자산운용사의 성장도 눈에 띈다. 지난 3월 2000억원 증자를 통해 중형 증권사로 발돋움한 BNK투자증권은 상반기 조정영업이익이 전년대비 92억원 증가한 352억원을 시현했다.

BNK자산운용은 지난해 12월 100% 자회사로 전환, 300억원 자본확충을 통해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국내 일반주식형 공모펀드 1년 성과기준 톱 5 운용사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디지털역량 부문에선 지난 5월 디지털혁신센터를 개소해 동남권 기반의 그룹 디지털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글로벌 부문은 은행권을 제외하고도 BNK캐피탈의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해외 3개 현지법인이 현지화 영업 등 기반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은 “한 조직의 리더는 구성원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한다”면서 “원칙과 명분이 통하고, 상식이 일반화된 건강한 조직이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 지난해 9월 취임식에서 김지완 BNK금융회장. /BNK금융

〈BNK금융의 2017년·2018년 상반기 실적〉

구분	2017년 상반기	2018년 상반기
당기순이익	3307억원	3576억원
이자이익	1조1339억원	1조1689억원
수수료이익	874억원	1103억원
총자산이익률	0.71%	0.78%
자기자본이익률	9.59%	9.80%

금융지주사 올 상반기 순익 7.7조원
이익 의존도 은행·금융 투자사 증가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

올해 상반기 금융지주사의 순이익이 7조원을 넘어섰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 하나, KB, 농협, BNK, DGB, JB, 한투, 메리츠 등 9개 금융지주의 상반기 연결당기순이익은 7조7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했다. 지난 2011년 7조6161억원을 기록한 이후 최대치다.

권역별로는 은행(4조4425억원→5조1795억원) 및 금융투자(1조818억원 →1조3079억원)가 증가한 반면, 보험(5674억원→4955억원) 및 비은행(1조2521억원→9643억원)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이익의존도도 은행과 금투 자회사에 대해 높아졌다. 이익의존도는 은행 65.2%, 금투 16.5%로 작년 각각 60.5%, 14.7% 대비 상승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지주의 연결총자산은 2006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5.5% 증가했다.

권역별 증가규모는 은행 69조1000억원(+4.8%), 금투 24조7000억원(+13.4%), 보험 4조8000억원(+2.8%), 비은행 5조4000억원(+5.1%) 등이다.

바젤Ⅲ 기준을 적용받는 금융지주의 총자본, 기본자본, 보통주자본 비율은 각각 14.49%, 13.11%, 12.56%로 전년 말 대비 각각 0.08%포인트, 0.20%포인트, 0.17%포인트 상승했다.

금융지주의 고정이하여신비율(고정이하여신/총여신)은 0.77%로 기업경영 정상화 등으로 전년 말 대비 0.05%포인트 하락했다.

이와 함께 대손충당금 적립액도 증가해 대손충당금적립률(총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은 전년 말 103.86%에서 114.75%로 높아졌다.

금융지주의 전체 임직원 수는 11만 5063명으로 전년 말 대비 230명 늘었다. 신규채용은 올해 하반기 중 2749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지주 실적이 은행 자회사의 순이자마진 상승과 금투 자회사의 수수료 수익 증가 등으로 개선됐다”며 “금융지주회사들이 무분별한 외형경쟁보다는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창립 11주년 기념식
“디지털생태계 초연결로 시장 선도”

‘딥체인지 1. 10. 100’ 키워드 제시

“디지털 생태계의 초연결(Hyper Connect)을 통해 시장을 이끄는 리딩 기업으로 진화하자.”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은 1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에서 창립 1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오는 11일 신한 페이팬(PayFAN) 론칭, 초개인화 국내 소비 금융 플랫폼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임영진 사장은 기념식에서 모든 임직원이 힘을 모아야 할 키워드로 ‘딥체인지(Deep Change) 1. 10. 100’을 제시했다.

먼저 임 사장은 디지털 생태계 초연결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는 ‘Only1’ 기업으로 진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본업인 지불결제 시장에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주도권을 강화하고 초개인화 상품서비스를 통한 고객에게 차별적 경험을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가맹점 플랫폼 ‘마이샵’과 외부 스타트업과 연계한 사내벤처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동반성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국내 최고 수준의 생활금융 라인업 구축과 더불어 디지털 광고(Ad-Tech), 마이데이터 산업, 글로벌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한계없는 비즈니스 영토 확장을 통해 미래 10년의 새로운 포트폴리오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신한카드는 신한카드 본사가 있는 을지로 100번지를 꿈의 일터로 완성해 나가기로 했다. 딥워킹타임(Deep Working Time),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몰입을 극대화하고 창의와 강한 실행 조직문화를 조기 정착키로 했다.

임 사장은 “변화를 거부하면 ‘도태’되고, 변화를 받아들이면 ‘생존자’가 되지만 변화를 주도하면 ‘리더’가 된다”며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시장의 Only 1’, ‘새로운 미래 10년’, ‘꿈의 일터 을지로 100번지’를 위해 함께 전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신한카드는 을지로 본사 강당에서 창립 11주년 기념식을 갖고 미래 청사진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신한카드 임영진 사장은 창립 기념사를 통해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시장의 Only 1’, ‘새로운 미래 10년’, ‘꿈의 일터 을지로 100번지’를 위해 함께 전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신한카드